

인 사 말

종정예하의 지혜와 정진의 덕화를 존경하며, 원로의장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의 고견과 격려를 항상 공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원로스님들께서 이루신 공덕에 누가되지 않도록 종단 운영에 면밀함을 다하겠습니다.

제34대 집행부는 원로스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같이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를, 시대와 함께 나아갈 명확한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겨우내 많은 토론과 준비를 진행하고, 사회와 이웃에 함께하는 불교의 상을 확립하여 사찰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차분히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꾸준히 시행한 이웃에 대한 나눔의 실천을 토대삼아 최근에는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에 긴급구호활동을 목표 이상으로 집행하여 현지에서도 귀감을 얻었으며, 장기적 사업으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기술학교 건립을 위하여 기초 작업을 완수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혜를 선양시키자는 취지로 그들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일이기에 한층 의미 있는 사업이며, 여기 계신 원로스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기에 성취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종도와 불자의 오랜 여망으로 추진해온 신도시 사찰 건립과 조계사 역사공원 성역화사업은 이제 실질적 성과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답사를 비롯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근 세종시에 3000평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의미있는 전통문화의 터전을 마련한 일이자 민족문화와 일치하는 불교문화의 수승함을 세계에 알

리는 주추를 마련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원로스님의 수행력과 근념의 공덕을 기반으로 장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를 통해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인 종단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애종의 마음과 경륜을 지니신 원로 스님의 지혜로움이 매우 소중한 때입니다. 종단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언제나처럼 청안하시길 기원합니다.